

CES 2015 참관기

김영석 MBC 기술관리부 부장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 초에 열리는 CES는 세계 최대 전시회 중의 하나라는 명성에 걸맞게 2015년에도 참석자 수, 신생기업 수 등에서 2014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전 세계로부터 무려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이 중 개최국인 미국을 제외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의 수도 4만 5천 명을 넘는다.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파나소닉, 하이엘, TCL, 주요 자동차 제조회사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을 포함한 3천 6백 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이 중 산업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신생기업의 수도 375개에 달했다.

“IoT(사물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자”

“Unlocking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IoT”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조연설을 통해 해서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사물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자’라는 주제를 통해 모든 사물 기기들이 서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모두가 여기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

- IoT(Internet of Things)의 핵심 요소 : Sensor, Processing Power, Connectivity
- Sensors는 ‘Always On/Always Connected’해야 하며 ‘Good Power Management’가 필요함
- 따라서 삼성전자는 E-POP(Embedded Package On Package)와 Bio Processor(45 Nano Meter One Chip)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2017년까지 TV와 스마트폰을 포함한 삼성전자 제품의 90%에, 향후 5년 내 모든 제품에 IoT 기능을 장착할 예정이며, 스마트 TV와 스마트폰 등이 IoT 허브가 될 것임
- 삼성전자는 2014년 동안 665백 만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는데 초당 평균 20개임
- IoT는 Walled Garden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기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오픈되어야 하며, 삼성전자의 모든 기기는 오픈될 예정임

- IoT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Cross-industry Collaboration'과 'Partnerships'이 필요함
- 이미 IoT 기기가 많이 있으며 이들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모든 레벨에서 'Security'가 필요함
- 모든 기업과 산업계가 협력하여 "IoT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자".

CES 2015 전시관 및 주요 전시분야

CES 2015는 메인 전시관인 CES Tech East의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CES Tech West의 Sands Expo 전시관에서는 IoT(사물인터넷)와 연관되어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분야(Robotics, Sensors, Smart Home, Wearables 등)와 3D 프린팅, 건강 및 스포츠 등 특화된 분야의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2015년에 새롭게 추가된 C Space at ARIA에서는 콘텐츠, 창의성, 기술, 브랜드 마케팅, 소비자 등이 서로 연계되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세미나 등이 열렸다.

전시장	전시 분야
CES Tech East (Las Vegas Convention and World Trade Center 등)	• Audio • Automotive electronics • Computer hardware/software/services • Content creation & distribution • Digital imaging/photography • Electronic gaming • Internet services • Video • Wireless devices & services
CES Tech West (Sands Expo 등)	• 3D printing • Fitness and sports • Health and biotech, • Robotics • Sensors • Smart Home, • Startups • Wearables
C Space at ARIA (New in 2015)	Conferences by Twitter, Google, Yahoo, iHeartMedia Inc., Havas Worldwide, etc



UHD TV 및 스마트 기기

CES 전시회가 소비자대전인 만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역시 디스플레이였다. 특히 작년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4K UHD TV의 대중화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듯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TV 시장의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UHD TV를 통해 TV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는 소니를 비롯한 일본 업체들, 막대한 내수 시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UHD TV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업체들 등이 대형 고급 제품부터 보급형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전시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CES 2015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가장 넓은 부스를 구성했다. 부스 입구 대형 벽면을 SUHDTV로 장식했으며 부스 중앙에는 윤부근 사장의 기조연설 주제였던 “Infinite Possibilities of IoT”라는 글귀가 적힌 대형 구조물이 공중에 설치되어 있었다. TV 시장의 절대 강자임을 강조하듯 세계 최대 크기의 8K 무안경 3D UHD TV, 88인치와 75인치 4K UHD TV 등 부스 곳곳에 SUHDTV라는 브랜드로 TV를 전시하였다. 부스 중앙에는 삼성과 제휴한 BMW의 스마트카를 배치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부스 가장 자리에는 갤럭시 기어, 무선 오디오,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 간 콘텐츠 공유, 가상현실 체험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스마트폰의 세계 1위를 강조하듯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복도에 갤럭시 노트4를 위한 별도의 대형 부스를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삼성 SUHDTV 전경



“Infinite Possibilities of IoT” 구조물



세계 최대 110인치 3D 겸용 8K SUHDTV - 3D 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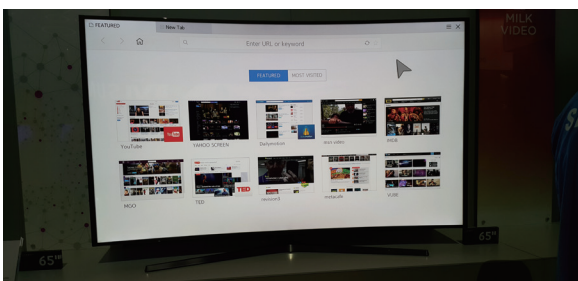
삼성 세계 최대 110인치 3D 겸용 8K SUHDTV-8K 모드



삼성 부스내 BMW 스마트카



삼성 SUHDTV 전경A삼성 전시관 광고



타이젠(Tizen) 웹 브라우저



타이젠을 지원하는 앱들



LG전자 부스 배치도

LG전자

LG전자는 전시관 입구의 대형 벽면에 OLED TV를 다채롭게 배치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자 다소 어두운 조명 속에서 선명한 화면의 OLED TV들이 다양한 원색의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너무나 선명하고 사실적인 OLED TV의 화면을 직접 보니 왜 OLED TV가 색상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UHDTV 존에서는 98인치 8K와 4K UHD TV가 시선을 끌었으며 Full HD와 4K로 업스케일링한 화면을 비교해서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webOS 2.0, G flex 스마트 폰, 우수한 디자인의 G Watch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넓은 부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서 제대로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OLED TV로 꾸민 LG 부스



LG의 4K UHD TV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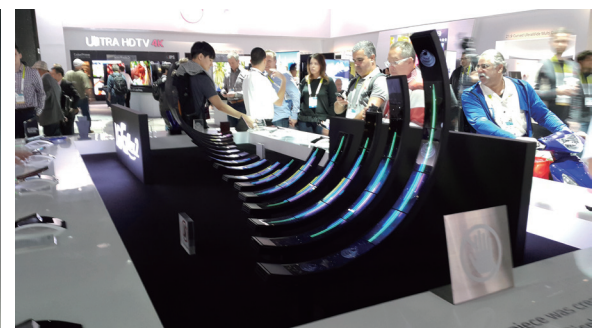
98인치 4K IPS



LG GwatchR



G Flex2



G Flex2 홍보 전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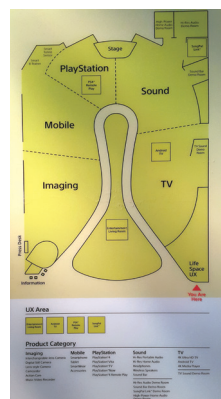


LG webOS 2.0 TV



webOS 2.0 파트너

소니



소니 부스 배치도

소니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4.9mm 두께의 65인치 4K UHD TV(X900C 시리즈)를 전시관 입구에 배치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UHD TV 관련 HDR(High Dynamic Range) 기술, 2K to 4K 업스케일링 기술 등에 대한 비교 화면을 통해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소니의 전시관은 영상기기, 모바일기기, 플레이스테이션, 오디오기기, TV, 'Life Space UX'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가장 인상적인 곳은 폐쇄된 공간이라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입장한 'Life Space UX' 구역이었다. 여기서는 소니가 최근에 시장에 출시했거나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인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 침실, 거실, 욕실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 가능한 소형 프로젝터, 조명기기에 내장된 다양한 스피커, 거실 장식장의 150인치 대형 프로젝터 등 모두 탐나는 제품들이었다.



소니 부스 전경



4K Action Cam FDR-X1000V



소니의 65인치 4K UHD TV



브라비아 TV에 적용한 HDR 기술



소형 프로젝터



프로젝터 스피커 일체형 전등



프로젝터 일체형 전등 화면

기타

삼성, LG, 소니 등 메이저 업체들에 비해 기술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하이엘, TCL, 하이센스, 창홍 등 많은 중국 업체들이 괜찮은 수준의 다양한 UHDTV 제품들을 선보였다. 도시바에서는 '치히라 아이코'라는 여자 로봇과 도시바 글래스를 전시하여 관심을 끌었다. 퀄컴에서는 4K 무안경 3D 기술을 지원하는 개발 키트를 소개하였고, dish에서는 위성용 4K 셋톱박스를 전시하였다. 한편 미국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인 HD Radio 측에서는 별도의 부스에 HD Radio가 장착된 현대 제네시스 차량 등을 전시하고 있었다.



하이엘 4K TV



TCL 부스 전경



하이센스 4K Wide Color Gaumet



창홍 4K Curved OLED



도시바 로봇 - 치히라 아이코



도시바 글래스



퀄컴 4K 무안경 3D 기술



Sling TV 부스



dish 4K UHD



dish 4K UHD STB Joey



HD Radio 부스



HD Radio를 탑재한 현대 제네시스

스마트카

자동차에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카 신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현대, 벤츠, BMW, 아우디, 도요타,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가 대거 참여하였다. 관련 전시관의 규모도 상당하여 IT 기술이 자동차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BMW는 삼성과 제휴하였는데 삼성의 스마트워치(갤럭시 기어)를 착용한 운전자가 'BMW PICK ME UP'이라고 명령하자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자가 위치한 곳으로 찾아오는 동영상상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의 기조연설 가운데 보여주었다. LG전자는 아우디/현대/벤츠와 제휴하였는데 LG의 신형 스마트 워치로 아우디 무인 자동차를 전시관 무대로 불러냈다. 또한 스마트 워치에서 측정된 운전사 상태를 바탕으로 차를 안전한 곳에 자동 주차토록하는 기술, 자동 운전 시 운전석을 뒤로 돌아 동승자와 직접 대화가 가능케 한 무인 조종 콘셉트 카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소개되었다.



AUDI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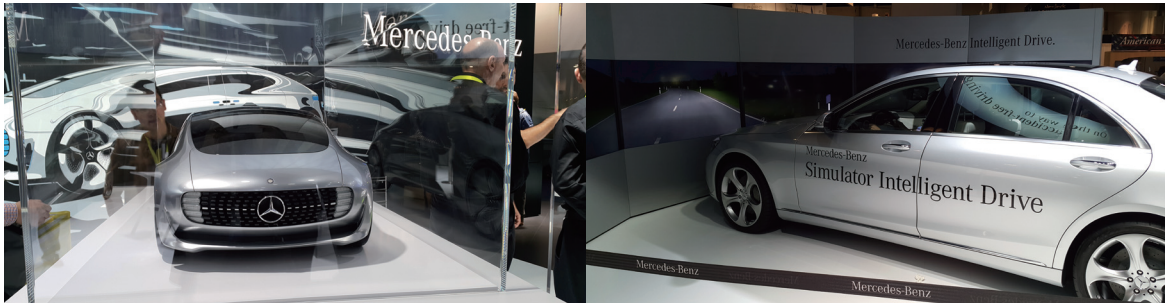


TOYOTA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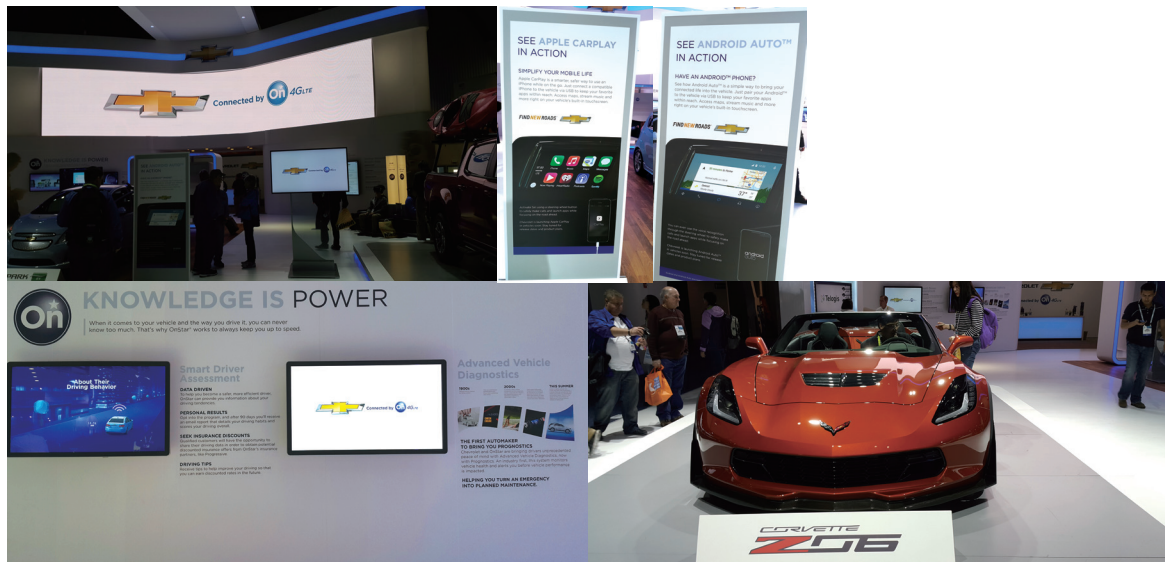


Volkswagen 부스





Benz 부스



CHEVROLET 부스



ford 부스



현대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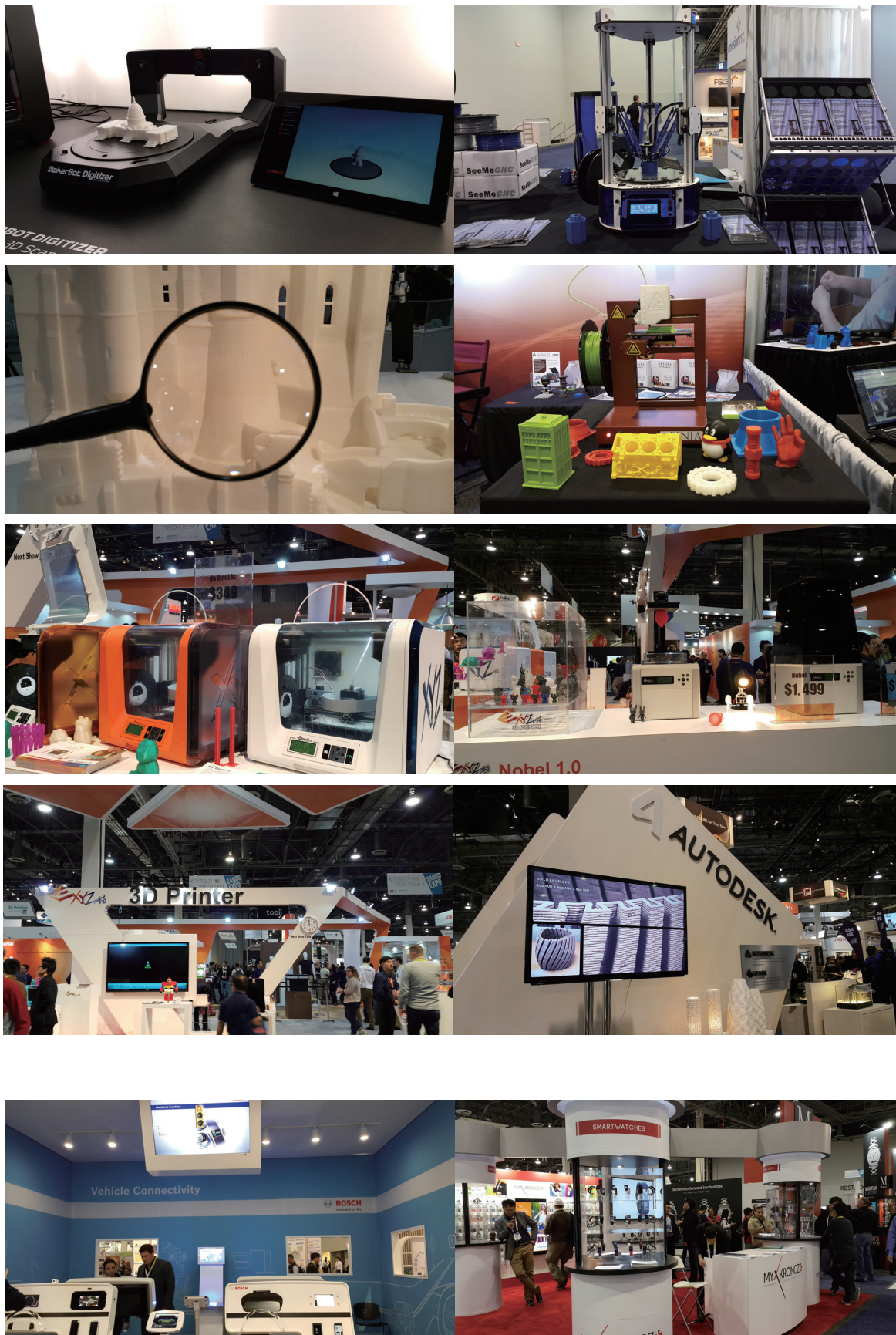
드론(무인 비행체)

이번 CES 전시회에서 화제가 된 드론은 독립된 전시공간에 10여 개 업체가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하였다. 또한 부스 내의 그물망 속에서 드론 특유의 소리를 내면서 시연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참여 업체는 대부분 중국 업체들로 중국 내 각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 업체로는 바이로봇이 유일하게 한국관에 전시되었다.



3D 프린터 및 IoT 기기 등

UHDTV, 스마트카, 드론 등과 함께 커다란 관심을 받은 곳이 Sands Expo에 대규모로 전시한 3D 프린터와 IoT 관련 기기들이다. 특히 이곳에는 IoT를 기반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편리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스마트 워치, 스마트 홈, 헬스 및 의료기기, 로봇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었다. 또한 Eureka Park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적용된 제품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맺음말

이번 CES는 올해가 UHD TV 대중화의 원년이라는 것을 선언하듯 최고급 제품부터 보급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었다. 특히 삼성과 LG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따라오지는 못해도 하이얼, TCL, 하이센스, 창홍 등 중국 업체들이 괄찬은 수준의 다양한 UHD TV 제품을 선보였으며 이들의 높은 가격경쟁력을 고려할 때 대중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ES의 C를 CAR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IT와 결합한 스마트카 기술을 소개하였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외에도 드론과 IoT 기기들의 경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술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해결할 점이 많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CES는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비자 가전 중심의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로 정말 많은 분야의 다양한 제품과 신기술이 소개되었는데, 이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왕성한 호기심이 꼭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